

사랑으로 차린 밥상에 행복이 모락모락

수익금 노인복지에 기부하는 부산 '콩마을 푸른밥상'

"구수한 된장 맛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다. 우리가 뭐 남편 손놀림이 있나 뽀사한 얼굴로 어서오시오 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거 그거 다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거 그거 뿐이다. 아이가 아하하." 부산 서대신동 시장골목 속 음식점 '콩마을 푸른밥상'에는 희망의 푸르름과 웃음이 가득하다.

콩마을 푸른밥상, 음식을 파는 다른 가게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어르신 8인이 모여 처음부터 끝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밥 한 공기 반찬 한 접시 정성스럽게 담고 있다. 깨끗한 앞치마와 머릿수건까지 청결하게 준비해 맛·정성·청결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다. 또한 수익금 전액은 노인복지에 사용돼 더욱 의미가 깊다. 푸른밥상 식구들은 인공조미료는 일절 쓰지 않고 국산품만 이용하여 고객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명철하다.

어르신들이 준비한 식단은 구수한 맛이 일품인 토종된장찌개참정식, 조개순두부쌈정식과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푸른쌈두부수육, 콩마을 맑은 소면, 생두부 등이



음식준비가 고될 때도 '콩마을 푸른밥상'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가득 핀다. 오른쪽부터 윤순봉, 이영자, 이춘자 할머니.

다. 음식재료 중 토종된장은 부산 내원정사에서, 유기농 야채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구수한 두부는 도솔산 콩마을 두부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콩마을 콩을 공급받는다.

조리팀장을 맡고 있는 이춘자(68·부산 서구 대신동) 할머니는 "손님이 오시면 열

마나 신이 나는지 정말 기분이 좋다"며 "마음을 맞추어서 일을 하니 협동심도 배우고 음식 맛도 하나가 된다"며 일하는 동안 느끼는 마음을 설명했다.

조리담당 이영자(69·부산 서구 대신동) 할머니는 "팁도 받았다"며 "음식 맛도 좋고

우리가 잘하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라고 자랑하며 밝게 웃었다.

"머칠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험을 쳤어요. 우리가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따봉'이라며 손가락을 들던데요"라며 크게 웃는 윤순봉(72·부산 사하구 당리동) 할머니, "15년 만에 처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며 "이제 돈 맛을 알았다"고 기뻐하는 한영순(66·부산 사하구 괴정동) 할머니 모두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 실무자 이해중씨는 "고객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며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아픈 곳도 없어지고 건강해지겠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콩마을 푸른밥상은 시장형 초기 투자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에서 제안해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부산 내원정사(주) 정원에서 출발한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기관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활동 참여 기회 및 건강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051)244-6709 글·사진·하성미 기자



11월 2일 제9회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기조 발표한 보광 스님.

한국불교전서 인터넷으로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산화 완료

불교 문헌 전산화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경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보광)가 1999년 전산화 시범사업을 필두로 2007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된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작업의 결과물(ibt.dongguk.ac.kr)을 공개했다. 11월 2일 '제9회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세미나'를 통해 전산화 성료 기념 고별식에서다.

이날 행사에서 홍영식·이금석·이용규 교수(동국대 컴퓨터공학과) 등 전산시스템 전문가들이 전자불전 전산화 시스템의 기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불교학자로는 임종욱 연구원(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과 류승주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불교전서>는 동국대학교가 30여년의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집대성한 한국불교 연구의 근간이 되는 자료다. 삼국시대 원옥 스님의

<반야심경>부터 구한말 보경 스님의 <염불요문요해>까지 171명의 고승대덕, 명현학사 등이 남긴 288종의 불교 관련 문헌들을 발굴·수집해 전 14책으로 발간했다.

연구소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번 전산화 사업을 이끈 연구소장 보광 스님은 "불교 문헌 전산화는 과거 찬란했던 불교 연구와 선조들의 빛나는 업적을 오늘에 되살려 그 숨결을 느끼도록 하는 작업"이라며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의 정책과제로 수행된 사업으로 본교가 갖고 있는 복합적 연구역량이 투영된 성과"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한국불교전서> 전산화를 통해 ▲유니코드에 없는 글자 관리 시스템 개발 ▲데이터베이스 저장·관리를 통한 다양한 구현 기술 확보 ▲웹 검색을 위한 인터페이스 및 웹 서버·데이터베이스 관리 기술 확보 등 전자 불교 문헌 전산화에 대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조종성 기자

부산 불자들이 '불교 수호' 한마음

부산불교연합회, KBS홀에서 제8회 팔관회 봉행



부산불교연합회 주최로 열린 '불교수호대법회'에는 사부대중 5000여명이 모여 불심으로 단결할 것을 다짐했다.

불교 수호를 위해 불교 수도 부산 불자들이 뭉쳤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상)는 11월 6일 부산 KBS홀에서 제8회 팔관회를 '불교수호대법회'로 봉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상 스님은 "불교 수호는 거창한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제방의 대덕님들과 불자 여러분이 팔계계를 수지·실천하고 정

법을 수호하기 위해 수행 정진하며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일심으로 노력할 때 할 수 있다"며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불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이러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재 스님은 "200만 불자의 도시 부산에서 불자들이 합심하면 400만 부산시민들이 평안해질 것이며 나아가 이 나라 불자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전계대화상으로 등단, 팔계계를 설했으며 연합회 상임부회장 혜련 스님, 연합회 사무총장 범산 스님 등 부산교계 원로대덕스님을 비롯해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조규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동심으로 부르는 찬불가

어린이합창단 '법소리' 10주년 기념 음악회

"은 세상이 눈을 감는 밤에는 풍경 소리, 목탁 소리 친구되지요~" 맑은 어린이들의 음성에 맞추어 부처님 법을 노래하는 시간이 펼쳐졌다. 찬불가를 통해 어린이가 포교에 앞장서며 10년 역사를 이어온 양산 통도사 부산산교원 불지사(주지 상진) 소속 법소리 어린이 합창단(이하 법소라이) 10주년 음악회를 11월 4일 부산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했다.

전국 연꽃합창대회, 전국합창제 등에 초청 공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소라이는 17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부

산 유일의 불교 어린이 합창단이다. '법소리'는 티베트불교의 전통 악기인 통첸(나팔)의 소라같은 모습과 소리에서 비롯됐다.

법소라이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불지사 문화관에서 김성국 교수(부산여대의 지도 아래 연습하고 있다. 박경재(51·명상선) 법소리 회장은 교리와 사찰 예절 및 포행을 한 달에 두 번 지도한다.

수강생은 수시로 모집하며 초등학교 2학년부 6학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051)816-2241 하성미 기자

통도사서 산림대법회

선지식 53인 법석 마련

산에 있는 수풀처럼 많은 수행자가 모여 공덕을 뒤는 해림(德林)의 자리가 마련된다.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가 매년 동안거 기간 동안 재가불자들의 정진을 위해 준비한 화엄산림대법회

를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한다. 법회 기간 동안 영원히 시들지 않는 보살행의 꽃이라 여겨지는 <화엄경>이 설했다.

통도사 전계사 해남 스님의 현담으로 입재하여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화향 법문으로 마무리된 화엄산림대법회에서는 총 53인의 선지식 법사스님이 화엄세계를 펼쳐낸다.

통도사 교무국장 진각 스님은 "이번 화엄산림대법회는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던 선재종자의 구도의 미와 <화엄경>의 뜻을 더욱 살려 53인의 법사스님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산림법회를 열게 되었다"며 "불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좋은 인연을 맺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3)382-7182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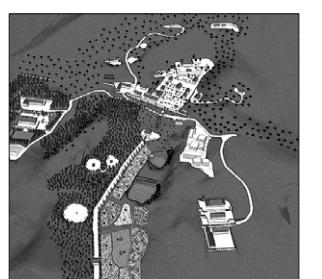
영주 부석사 현대풍으로 새단장

270억 원 투자 내년부터 본격 정비작업

영주 부석사가 현대적인 모습을 가미한 도량으로 거듭난다. "부석사 종합정비계획이 10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 심사에 통과해 내년부터 총 270억 원을 들여 본격 정비작업에 들어간다"고 영주시가 11월 2일 밝혔다.

영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부석사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석사에 100억 원을 들여 유물전시관 건립, 일주문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8년에는 공간간 보수, 건물 단청 등 각종 사업에 17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 심사 통과로 2009년 이후 2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화엄사산 연구원, 교육원 선방 건립, 연지 조성 주변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



부석사 종합정비계획 조감도.

이다.

부석사 종합정비가 완료되면 부석사는 화엄사산 교리 전파 및 인제양성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통해 전통사찰이 현대화된 불교사상 전파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또한 의사 대사와 선묘남자의 설화를 극화로 제작해 공연하는 등 부석사 일리기에 영주시가 적극 나선다. 김지연 기자

미항사, 12월 수행자 모집

해남 미항사(주지 금강)가 한국 전통의 화두참선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7박 8일간의 '참사람의 향기' 12월 수행자를 모집한다.

12월 15~22일 열리는 12월 특별 수행 '참사람의 향기'는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법문(수행체계), 다도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매일 6시간씩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의 지도로 참선수행을 한다. 수행문답 시간 외에는 묵언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침에는 죽, 점심은 발우공양, 저녁은 효소와 주스 생강차 등으로 신체를 조절하는 오후불식을 실시한다.

법인 스님(대홍사 수련원장)이 '수행론'을, 금강 스님이 '좌선의' <육조단경> '화두간택'을 강의한다. (061)533-3521 김지연 기자

티베트 텐진 린포체 내한

청주 여자교도소서 마정수기

달라이 라마의 스승이 환생했다 알려진 티베트의 텐진 린포체가 육천 대상사(주지 혜철)의 초청으로 내한했다.

텐진 린포체는 11월 2일 7명의 스님들과 함께 청주 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불자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정수기를 했다. 수용자들은 한명씩 텐진 린포체와 개인 면담을 통해 소원성취 의식을 봉행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통해 참 불자의 삶을 발원했다.

마정수기 의식 후 청주 대한불교수도원(주지 설곡)이 마련한 100가지 차 시음회에 참여한 텐진 린포체는 우리나라와 티베트의 차에 대한 교류 시간을 가졌다.

혜철 총정지사장

"군대에 부처님 말씀의 씨앗 뿌려요"

軍포교의 선봉 대원불교청년회

포교의 외곽지대, 군포교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며 꾸준한 활동을 펼치는 전법사들이 있다.

부산 공덕원(주지 효선) 대원불교청년회(회장 조재호)를 해군 3함대 군법당에서 만났다.

장병들을 위해 마련한 장기자랑 대회에서다.

대원불교청년회는 지난 3월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엔 어김없이 해군 3함대를 찾았다. 불교에 관심 있는 장병들을 위해 찬불가·율동 지도, 불교교리 퀴즈대회, 팔만대장경을 소개하며, 국악 공연 등을 진행하며 장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11월 7일에는 특별히 장기자랑 시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해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은 "부처님의 법에 친숙해지도록 도와 군 생활동안 지혜롭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군포교를 시작했다"며 "지금은 작은 활동이지만 이 노력들로 인해 분명히 부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신행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호 회장은 "처음에는 장병들이 잘하는 것도 어색하고 불교에 대해 정적인 인상만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며 "지금은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합종도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원불교청년회는 앞으로 능동적인 포교 활동을 위해 장병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개별적인 연락과 청년회 소식지 발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찰을 순례하며 학습할 계획도 있다. 조 회장은 "현재 해군 3함



해군 3함대 군법당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한 불자장병들.

대 법당을 찾는 장병들의 80%가 경남·부산 출신이어서 장병들이 제대한 후에도 지속적 포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장병포교의 미래를 전망했다.

대원불교청년회가 장병들의 군생활에 조인과 즐거움을 담당한다면 먹을거리는 열린 마음봉사가기 바란다.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수요일에는 해군 3함대 장병들을 위한 간식을 정성스럽게 마련한다. 하성미 기자

'東亞 문화정체성' 확립 방안 논의

동국대, 韓·中·日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11월 15~16일 교내 예술극장에서 '동아시아 문화정체성 확립을 통한 한·중·일 협력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한·중·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조직위원장 홍윤식 박사(일본학연구원)는 "고령화, 환경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삼국 공동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고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국

제학술심포지엄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사는 제1분과 경제를 뛰어넘는 문화, 제2분과 의료·생명윤리, 제3분과 경제·산업·에너지, 제4분과 과학·기술·환경, 제5분과 문화·사회, 제6분과 기후변화와 동아시아 환경문제에 대한 한·중·일 협력방안으로 나뉘어 3개국 46명이 발표한다. 각 분과별 주제발표 뒤 별도의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종성 기자